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1. 2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대서양 참다랑어 수확 전략(Harvest Strategy) 수립을 향해
2. FAO 수산위원회(COFI), 국제 전재에 관한 지침 개발
3. 일본, 관계국에 IUU 어업 감소를 위해 국제 협조 요청 예정
4. 캐나다 해양수산부 참고래 보호 조치 강화
5. 동남아시아 대상 일본산 복어 수출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6. 2021년 베트남 수산물 수출액 양 88억 달러 예상

- 비록 대서양 참다랑어가 가장 통제수준이 높은 어류이고, ICCAT의 회복계획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상징적인 다랑어의 관리는 보다 개선될 수 있음. 이는 지난 주에 PEW와 WWF에 의해 조직된 웨비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임.
- 2월 3-4일에 개최된 대서양 참다랑어 웨비나에서 과학자와 어업 관리자들은 어류의 자원 상태, 어획한도, 지속가능한 이용방법에 관한 시각을 공유했음.
- 프랑스 해양이용연구센터(IFREMER) 전문가들은 대서양 참다랑어 자원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원회복에 대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반면, 업계 대표자들은 그들의 관찰에 따르면 바다 속의 참다랑어 수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고 함. IFREMER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시각이 어류의 풍도와 회유 양상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또한, 참다랑어 재생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음.
- 자원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어획 모니터링 개선, 연구 쿼터 1% 배정, 그리고 IUU어업 및 과도어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과능력 방지를 조언했음. 그들은 또한 참다랑어를 위한 어획통제규칙 수립이 유용할 것임을 언급하였음.

■ 수확 전략(Harvest Strategy)

- 수확 전략은 과학연구를 토대로 참다랑어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평가를 바탕으로) 매년 반복되는 현재의 정치적 협상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Ocean Foundation의 Shana Miller는 말했음. 수확 전략은 장기적으로 참다랑어 자원관리에 도움이 될 것임.

- 남아공 케이프타운대학 명예교수이자 ICCAT 자문관인 Doug Butterworth 교수에 따르면, 2022년까지 5년 기간의 수확전략을 채택하기 위한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함. 9월에 여러 시나리오들이 ICCAT 회의에 검토를 위해 제출될 것임. 가장 큰 어려움은 생물학적 특성의 불확실성 정도임. 대서양에는 두 개의 참다랑어 계군 - 지중해에서 산란하는 동부계군과 멕시코만에서 산란하는 서부계군 - 이 있는데, 동부계군을 위한 관리조치는 현재 서부계군만큼 포괄적이지 않음.
- 스페인의 RFMO국 부국장 Antonio Lizcano는 스페인 정부는 장차 채택될 수확 전략을 지지할 것임을 말했음. 그는 수확 전략이 이행될 경우, 연간 쿼터 수립에 관한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Butterworth 교수는 이해관계자의 관여가 수확 전략의 성공에 핵심이라고 하였음. 수확 전략의 구조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존중이 되어야 하고, 이들은 ICCAT 내 그들의 대표자들을 통해 의견을 낼 것이 장려됨.
- 웨비나 마지막에 유럽의회 수산위원회(PECH) 의장 Pierre Karleskind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야 하므로 규칙에 대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유럽연합 내부적으로만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음. 그는 식품사슬 원칙에 공감을 표시하였고, 소비자들이 다랑어가 어디서 오고 있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고 있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출처: atuna.com 1)

1) <https://atuna.com/news/iccat-on-track-to-set-harvest-strategy-for-iconic-tuna?highlight=WyJpY2NhdCIsImJy2F0J3MiXQ=>
(2021년 2월 12일 검색)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COFI)는 조업과 관련한 전채 활동에 관한 국제 지침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음.
- COFI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화상회의로 제34차 세션을 개최하였음. COFI는 세계의 어업과 양식에 관해 검토하고 방향을 제공하는 회의로, 2년마다 개최됨. 이번 제34차 회의에서 전채 및 항만국조치(PSM)와 같은 중요한 이슈들이 논의되었음.
- 다량어 업계는 방콕 및 세계의 주요 다량어 허브로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해 전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 COFI에 따르면, 전채하는 것이 허가된 선박 척수가 가장 많은 기구는 WCPFC(740)와 IATTC(680)임.
- COFI 회원국들은 이르면 내년 초 어획물 전채를 규율, 감시, 통제하기 위한 국제지침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음. FAO의 최근 보고서에서 전채 활동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음. PEW 자선재단은 회원국들이 전채 및 관련 활동을 정의할 국제조치를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했음.
- PEW 국제어업 선임 담당관 Dawn Borg Costanzi는 COFI 회원국들이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음. “특히 공해 조업활동에 대한 규율을 개선하고, 수산물 공급체인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표준화함으로써, 정부들은 어업 관리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 제34차 COFI 회의에서 항만국조치협정(PSMA) 또한 논의되었음. PSMA는 IUU어업 근절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으로, WWF는 더 많은 국가들이 PSMA 협정을 비준하였거나 비준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음.

WWF는 또한 참가 대상국이 40개를 넘어선 FAO의 PSMA 역량구축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 “하지만, WWF는 제34차 COFI 회의에서 나타난 의지는 위기 수준인 현재의 과도어획을 막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고, 회원국들은 어업부문 내 인권 유린과 해로운 수산보조금 문제를 신속히 다루는 데에 여전히 주저함이 있다”고 보도문을 통해 발표했다.

■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 채택 25주년

- 제34차 COFI 회의는 또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을 위해 지침이 되어온 핵심문서인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의 채택 25주년을 기념하였음. FAO는 지난 25년간의 세계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보고서에 따르면, 더 많은 FAO 회원국들이 자국 선박들에 의한 EEZ 내외의 조업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보고시스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2020년에, 그 비율은 90%를 넘었음. FAO는 194개 회원국과 2개 준회원국, 그리고 EU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선박감시시스템(VMS)의 이행 정도는 여전히 불충분함. 2020년에, VMS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수립된 회원국은 55%에 불과함. 하지만, 외부 센터를 통해 외국어선을 감시하는 회원국 수는 증가하였음. NGO들은 다량어 연승선들의 VMS에 대해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음. 선망선에는 옵서버가 100% 승선하고 있음.

※ 출처: atuna.com 2)

2) <https://atuna.com/news/fao-members-to-develop-international-transshipment-guidelines?highlight=WyJmYW8iLCJmYW8ncyJd>
(2021년 2월 10일 검색)

3 일본, 관계국에 IUU 어업 감소를 위해 국제 협조 요청 예정

■ 일본 수산청, IUU 어획물 수출입 금지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모색

- 불법 어획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을 '22년 12월까지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수출입 관계국 간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IUU 어획물이 일본 국내에 수입, 유통되지 않도록 수출국 정부와 협의 중
- 동법은 국산 어획물, 수입 어획물 각각에 대해 불법 어획되기 쉬운 어종을 정부가 지정, 취급업자에게 생산 합법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전달 및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 수입 어획물의 경우, 대상으로 하는 어종이나 해당 어종을 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수입하는 업자는 세관에 적법한 어획 증명 서류를 제시하도록 의무화
 - 제출 서류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얻어야 함
- IUU 어획물의 유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가 어업 감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획물에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유럽 사례) IUU 어획물 수입규제를 선행하는 유럽연합 (EU)은 신뢰할만한 IUU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수출국을 지정, 악질적일 경우,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일본 수산청 가공 유통과 과장은 9일, 온라인 강연을 통해, IUU 근절과 관련된 EU와의 이전 의견 교환에 대해 언급

- “증명서의 신뢰도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EU도 국제적인 협의, 대화를 거쳐가면서 세계적으로 IUU 어업 자체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거듭해왔다고 한다”고 설명
- 수출입 상대국과의 대화가 핵심적인 키로 작용할 것
- 현재 일본 수산청은 도쿄에 있는 해외 대사관에서도 IUU 수입 어획물과 관련된 설명회를 열어, 질문을 받는 등 의견 교환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민간 수출업자, 일본 국내 수입업자들과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예정

※ 출처: 미나토 신문³⁾

3)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9203> ('21년 2월24일 검색)

□ 2020년부터 멸종 위기에 처한 참고래 보호를 위한 조치 실행 중

- 캐나다 해양수산부(DFO) 기존 조치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더해 2021년 북대서양 참고래 보호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함
- 북대서양 참고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종 중 하나로, 약 366 마리 정도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음
- 캐나다와 미국 동부 수역에서는 참고래가 그물에 얽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법원에서는 미바닷가재협회에게 멸종위기종보호법 위반 판결을 내리고, 2019년 미 상원에게 캐나다가 참고래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행하도록 촉구하도록 하였음
- 2020년 캐나다는 자국 수역에서 고래종 보호를 위한 다수의 조치를 실행하였고, 본 조치들 다수가 2021년에도 계속 적용됨
- 주요 조치 중 하나로서 시각 또는 청각으로 참고래가 발견될 시 발견지점 주위 약 2,000 평방미터 수역에 15일 금어기를 설정하는 조치를 들 수 있음
- 2021년에는 본 금어기 9~15일 이내로 해당 수역에서 참고래가 시각 또는 청각적으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됨
- Bay of Fundy, Rseway, Grand Manan 유역에서는 참고래가 재발견되면 15일이 추가 연장되며, Saint Lawrence 만에서는 두 번째로 발견될 시 해당 수역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조업이 금지됨

- 금어기 해지를 위해서는 두 번의 항공 정찰 중 고래가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항공 정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안전한 항공 정찰이 가능할 때까지 금어기가 지속됨
- 금어기/금어수역에 더해, 캐나다 북극과 퀘벡에서 고정어구(fixed-gear)조업에서 어구표시와 어구 유실 시 보고의무 등을 지정하였으며, 해양포유류와 어구 간의 접촉은 반드시 보고되어야 함
- 한편 캐나다 해수부는 “고래 안전” 어구 실험을 허락하고 있으며, 그물이 없는 어구는 금어기에도 허가를 내주고 있음
- 또한 참고래 어업관리를 위하여 업계, 과학자, 정부로 구성된 작업반을 개설하는 등 참고래 및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실행하는 중임

※ 기사 출처: seafoodsource.com⁴⁾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canada-announces-new-2021-measures-to-protect-endangered-right-whales> ('21년 2월 26일 검색)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상, 일본산 복어 수출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실시
 - 수산물 수산가공품 수출 확대 협의회는 국제복어협회 와 함께 일본산 복어를 말레이시아에 수출 확대해가기 위한 프로모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도쿄의 말레이시아 요리점 “말레이시안 큐진”과 협력하여 일본산 복어를 사용한 말레이 요리 5가지를 개발, 조리 과정, 소비자 반응 등을 동영상으로 공개
 - 복어 취급을 검토하는 말레이시아 현지 식당,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일본산 까칠복 (spotty back puffer)를 보내주는 기획을 실시하고 있음 (2월까지)

- 말레이 요리에서 영감을 받은 복어 메뉴는 복어를 바나나 잎에 담아 삼발 (sambal) 소스를 부어 구워낸 복어 삼발 구이, 매콤한 복어 튀김, 복어 생강 파 볶음 등을 제안
-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모션 일환으로 특설 홈페이지를 개설
 -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본산 복어를 증정하는 이벤트 실시 중
- 국제복어협회 후루카와 회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산 복어와 관련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현지에서 복어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향후 복어 수출 확대에 연결시키고자 한다”고 언급
- 동일한 프로모션은 싱가포르에서도 진행된 바 있음 (1월 말)

※ 출처: 미나토 신문⁵⁾

5)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9299> ('21년 2월24일 검색)

□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산물 수출 분야 경쟁우위 변함 없어

-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공급업자 협회(VASEP)는 2021년 베트남 수산물 수출액을 전년 대비 5% 증가한 약 88억 달러로 예측한다고 밝혔음
- 코로나 사태로 세계 수산물 섭취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지만, 베트남 수산물 주요 수출시장인 EU, 중국, 한국, 일본 등 국가들의 베트남 수산물 수입이 3~6% 정도 줄면서도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1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다른 수출시장인 러시아,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베트남 수산물 수입이 10~32% 증가함
- 작년 베트남 수산물 수출은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0%와 7%씩 하락하였으나, 3/4분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였음
- 작년 말 기준 베트남 수산물 생산량은 약 840만 톤으로 2019년 대비 3% 증가였으며,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81억 달러로 기록되었음
- 2021년 동 협회는 코로나의 수산물 교역에의 영향이 지속되더라도 베트남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함
- 이에 더해 자유무역협정이 일부 시장에서의 수출 회복에 힘을 보탬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수출업체들 역시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필요와 선호도 변동을 겪은 후 얻은 경험으로 더 유연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동 협회는 설명함

출처: www.phnompenhpost.com ⁶⁾

<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vietnamese-seafood-exports-expected-reach-88b-2021>
(21년 2월24일 검색)